

## 우리들의 모습

## 예신 겨울 캠프

##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1월 21일(화) - 22일(수) 1박 2일 동안 신학생들과 예비신학생들이 상주 가르멜 여자 수도원으로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즐겁게 축구도 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꿈, 내가 되고 싶은 신부님'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였고, 이튿날 상주지구 성당을 순례하며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성소자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2월 22일 베드로  
대신학생 - 이상헌 (태화동, 학부1)

## 성사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우리 가톨릭교회에는 모두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혼인, 성품, 고해, 병자성사이지요. 어떤 성사는 여러 번 받지만, 어떤 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아요.

미사는 성당에서 거의 매일 있고, 그때마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고요.

세례 받은 신자가 세례 이후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용서받는 '고해성사'와 병자나 죽을 위험에 있는 환자가 받는 성사인 '병자성사'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해성사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성사'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견진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로 선발된 이들이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으로 축성받는 성사인 '성품성사'와, 남녀 신자가 한평생 부부로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께 서약하는 '혼인성사'도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으며, 사제 역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지, 아니면 사제로 살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신자들은 일곱 성사 중 성품성사를 제외한 여섯 성사를 받고, 사제는 혼인성사를 제외한 여섯 성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개의 성사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신생 친구들, 나중에 이러한 성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이 되길 바라요~!

## 기억해요!

### 1. 대신학교 수직식 및 입학식

- 일 자 : 2월 28일(금) / 3월 1일(토)
- 장 소 : 대구 신학교 남산동 대성당
- 대 상 : 시종직 - 김정수 그레고리오(송현동 본당)  
이민우 테오필로(봉화 본당)  
최영식 아우구스티노(휴천동 본당)  
신입생 - 이상헌 베드로(태화동 본당)

\*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세요.

2025년 2월

## 예비신학생 편지



< 2025년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 모래 위의 발자국 -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던단다.  
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살아가면서 기쁜 순간, 힘든 순간 모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특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업고 걸으심을 잊지마세요~!

## 신학생으로부터~



예신생 친구들,

신학교에 입학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남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여전히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과 기대가 뒤엉켜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군대에서 겪게 될 일들이 어떤지 상상하면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 규칙에 얽매이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떠나는 길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여러분과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지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예신생들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며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편지를 마칩니다~



모전동 본당, 군복무  
심민성 디오니시오 신학생

##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우리의 동태대로 오니 퍼남... NANDO